

“겸허한 자세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 하렵니다!”

박찬선 (대전시 대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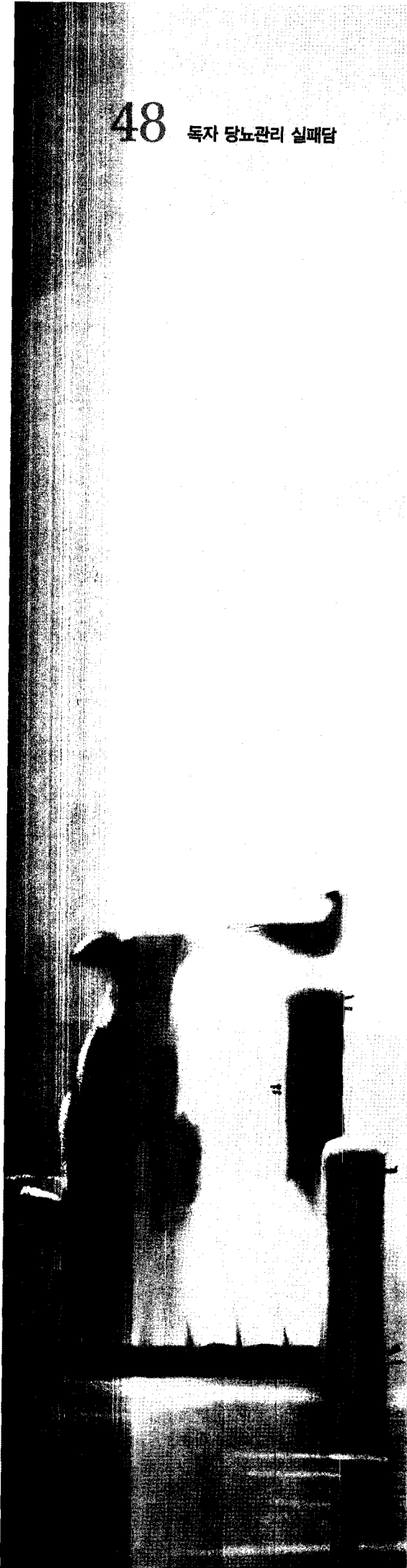
모름지기 직접 고통을 겪어봐야 남의 고통을 안다고 했다. 그래서 인지 당뇨병환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환자의 심정을 역이용하여 터무니 없는고액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

민간요법이 합병증 앞당겨

내 나이 58세, 나에게 당뇨병이 발병한지는 올해로 27년이 된다. ‘병은 한가지요, 약은 백가지다’ 라고들 하듯이 나 또한 그동안 당뇨를 치료해 보고자 먹어본 것이 날 콩즙·누에가루·옥수수수염·찰벼즙·알로에·호박·두충잎·인삼엑기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무지(無知)하게 당뇨관리를 해온 나에게 합병증이 나타난 것은 당뇨병을 안지 5년쯤 지나서 부터다.

거침없이 찾아오는 합병증

합병증은 입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치아가 자주 아프고 피가 나며 흔들리더니 이런 증상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이내 치아는 힘없이 빠져버렸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보니 치아가 많이 빠져 부분의치 신세를 지게 됐고, 그 후로 당뇨병 발생 12년 즈음 본격적으로 당뇨합병증이 내게 달려들 듯 찾아왔다. 몸이 자주 붓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1.5의 시력을 자랑했던 눈이 점점 나빠져 밤에는 신문물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안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고,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는 병원에 입원, 전문의의 관리 하에 인슐린 펌프를 부착했지만 한번 나빠진 신체 각 기관들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다.



입원 한 지 한 달 만에 퇴원을 하여 집에서도 계속 인슐린 펌프를 부착 한 채 생활을 했지만 어쩐지 온몸이 계속 붓고, 시력도 급격히 떨어졌으며 고혈압 증세도 보이면서 합병증은 점점 심해져만 갔다. 온몸의 부종으로 숨이 너무 차서 누울 수도 없이 며칠 밤낮을 앉아서만 생활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는 심장과 폐까지 심각하다고 진단이 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대형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입원 진찰을 받았다.

그곳에서는 당뇨로 인한 신부전 증세로 양쪽의 신장이 모두 망가졌다는 진단을 내렸고 복막투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나는 담당의사의 권유대로 복막수술을 받고 하루에 네 차례씩 투석을 받았는데 오랜 입원생활 때문인지 기력이 떨어져 잘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규칙적인 운동을 권유 받고 병원에서는 운동하기가 마땅치 않았지만 틈이 나는 대로 병원 복도를 걸었다. 환자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중 에도 혼자서 복도에 나와 이를 악 물고 걷고 또 걸었다. 한 달 후 퇴원을 하였으나 이제는 눈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 졌고 옆 사람도 몰라볼 정도가 되었다. 안과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과 녹내장이 겹쳤다고 호전되기는 어렵고 더 악화 해 실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먼저 왼쪽 눈의 망막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는 안 좋았고 결국 왼쪽 눈은 실명에 가까워 졌다. 하늘도 무심해 남은 오른쪽 눈마저 더욱 어두워지더니 몇 개월 전 부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돼 그야말로 장님 생활을 했다. 모든 생활을 손으로 더듬어서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실명인지라 그 절망은 다 표현이 되지 않는다.

절망 끝에 희망을 품다

처음에는 나의 이런 신세를 비관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것을 신의 섭리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대로 영원히 장님이 된다 해도, 또 죽는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단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의 수술을 받기로 하고 또 다시 입원을 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혈당을 조절해야 했고, 약 보름간 죽을힘 다해 노력한 결과 혈당과 혈압을 어느 정도 정상치로 환원시킬 수 있었다. 곧 이어 오른쪽 눈 수술 일정을 잡고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며 수술대에 올랐다. 당뇨에 혈압도 있고 망막증이 심하게 진행돼 수술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대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3시간 반의 수술 후 놀랍게도 결과는 성공이었다. 이제 나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한쪽 눈으로나마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이제 나는 죽는 날 까지 모든 이에게 감사하면서 살 것이다. 이것이 무슨 자랑일까마는 나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증, 고혈압, 당뇨병성 망막증, 신경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에 와서 그토록 후회하는 것은 '왜 진작 좀 더 철저하게 당뇨관리를 하지 않았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의사를 찾아가 그 지시에 따라야 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맹신했으니 어리석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례를 쓰는 이유는 또 다른 당뇨병환자가 나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에서다. 누군가 당뇨병은 무덤에 까지 가지고 가는 병이라고 했고, 현대의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뇨병의 완전한 치료법을 밝혀 내지 못하고 있으니 환자 본인이 잘 알아야 한다. 여기서 나는 꼭 이 말을 하고 싶다.

“검증 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현혹되지 말고, 의사·간호사·영양사의 지시에 따라 확실한 치료법으로 당뇨를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얻은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